강원지역 광산노동자투쟁 관련자료

- 1980년 4월 사북광산노동자투쟁, 성완희 열사의 분신 -

전 명 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리과장)

지난 여름 원기준 목사를 만나러 태백에 갔다. 자신의 역사이기도 한 자료를 기증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원목사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게되면 더 큰 의미를 가지리라 말씀드리고 함께 사무실 지하 창고로 들어갔다. 전깃불도 없어 랜턴을 들고 들어서니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했다.

총 1,577건에 이르는 이 자료는 1980년 사북노동자항쟁에서 1987년 7~8월노동자투쟁 당시 광산노동자투쟁관련 자료, 성완희 열사분신관련자료, 1989년 삼척탄좌, 동원탄좌투쟁관련 자료 등 80년대 광산노동자투쟁에 관한 주요한 자료다.

1980년 4월 사북광산노동자투쟁

1980년 5월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에서 발행한 『동원탄좌 시위조사보고서』는 20쪽의 소책자지만 사북항쟁 직후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동원탄좌광산노동자들과의 광범위한 대화와 경위조사에 의거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높다.

1980년 4월.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12 · 12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새로운 군부정권을 수립하려는 음모가 진행되어가는 시기에 강원도 오지인 정선군 사북에서는 탄광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는 한 사건이 터졌다.

사북 동원탄좌는 1962년 창립된 이래 4,0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국내 석탄 총생산량의 9%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180여개의 광업소에 53,000여명의 광산노동자가 있었다. 이들은 안전시설이 미비한 막장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따라지 인생' 이니 '문둥이 다음' '인간두더지' 등으로 불렀다. 한밑천 잡아 도시나 농촌으로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매일매일 탄가루와 화약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들 광산노동자들의 투쟁에 불을 지핀 것은 사측과 밀착되어 노동자들을 배신한 노조지부장 이재기의 행위였다. 그는 6대 지부장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되고 또한 광산노련의 80년 임금인상요구액 85,000원(42.75%)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20% 합의에 직권조인하였다.

1980년 4월 18일 노동자들은 '지부장선거문제와 조합비 횡령혐의, 임금인상폭에 대한 불만'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기 지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집회를 불허하고, 노동자들의 항의를 피해 도망가던 경찰 지프에 깔려 원일호(41세)씨가 중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마침내 4월 22일 광산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2,000여명은 400여명의 기동경찰대와 대치하면서 요구사항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강원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사측의 고위간부, 경찰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재개하였다. "이

재기 지부장과 노조집행부사퇴, 부상자치료 및 보상금 회사부담 … 경찰 실력행사 절대삼가 …" 등의 합의문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 신군부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던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파업주동자 색출과 적극가담자 검거에 앞장서 70여명의 광산노동자들이 계엄군과 헌병에게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였고 사건 관련자들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3년~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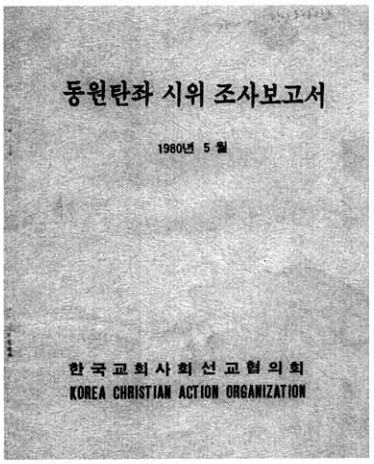
『동원탄좌 시위 조사보고서』는 당시 사북항쟁에 대해 "이번 사태는 결코 폭동이나 난동으로 규정될 수 없다. 압살당한 생존권을 찾기 위한 노동운동이었다. … 광부들의 격렬한 대응행동은 상황윤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명실공히 정당방위였다. … 부패하고 부정축재한 어용노조간부들은 조직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조속한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 언론은 관제로 인한 편향 왜곡보도의 오랜 구각을 과감히 탈피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보도로 사건의 실상을 밝히는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등의 결론을 맺고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광산노동자 성완희 열사의 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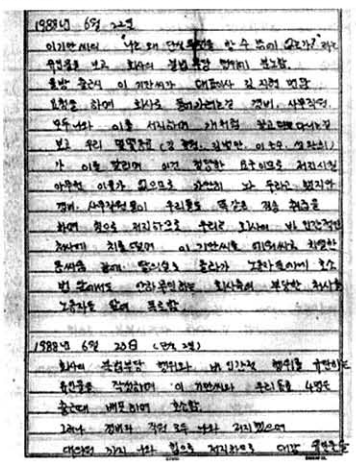
「성완희열사소식」「상황일지」(수고) 등은 1988년 6월 민주노조를 염원하는 탄광노동자 성완희열사의 생생한 투쟁기록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1980년 사북항쟁과 광주민중항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등장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뜨거운 항쟁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6월의 열기는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확대되어 한국노동운동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대투쟁의 흐름 속에서 광산노동자의 파업투쟁도 확산되어 전국 361개 광산의 8만 노동자 중에서 장석석공, 도계석공, 삼척탄좌, 동원탄좌, 강원산업, 대성탄좌 등 125개 광산 5만 노동자가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광산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마침내 또 하나의 죽음을 불러왔다. 1988년 6월 29일 강원탄광의 광산노동자 성완희씨(당시 28세)가 "인권탄압 중지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광산쟁이



동원탄좌 시위조사보고서
1980년 5월 직후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에서 발행한 사북항쟁관련 보고서



89년 광산지역임투전진대회
1989년 4월 9일 태백에서 열린 광산지역임금인상 투쟁본부의 임투전진대회 관련 유인물

열사의 뜻 이어받아 민주노조 쟁취하자!

성완희열사소식

제 5 호

강원탄광 노동자들 마침내 민주노조 첫걸음

〈투쟁일지〉

우리에게 민주노조가 있었다면…

강원탄광측 더무니 없는 조건 내걸고 협상결렬

성완희열사소식
1988년 6월 29일 성완희열사가 분신한 직후 노동열사 민주국민장 장례위원회에서 발행한 소식지

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것이다.

강원탄광은 1988년 1월 동료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기만씨를 부당해고 했다.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이기만씨에 대한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결,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강원탄광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성완희씨와 동료 노동자 6명은 6월 29일 오전 8시 삭발을 하며 '부당해고 철회' '노동자탄압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회사측이 구사대를 동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노조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자 성완희씨는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구사대는 창문을 부수며 사무실에 들어왔다. 성완희씨는 '우리의 정당한 단식투쟁을 방해하지 마라' '들어올 때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결국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후 강원탄광노동자 500여명은 파업투쟁을 벌여 결국 어용노조위원장의 사퇴서를 받아내고 민주노조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였다